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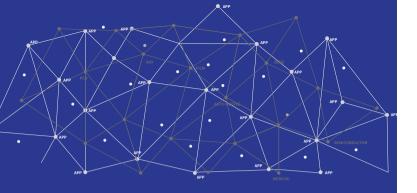
미션과 비전이 살아 꿈틀거리는 에이피피에서 새로운 도약이라는 중요한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2019년 기해년의 시작과 더불어 CEO의 중책을 맞게 된 김대용입니다.

지난 12년간 에이피피는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까지 고객분들과 임직원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둥지에서 자라난 새들이 힘찬 날개짓으로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듯 에이피피가 더 넓은 세상으로 비상하는 2019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국내 외 반도체 기업들과 나노산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경험한 다양한 실무를 바탕으로 에이피피가 힘찬 도약을 하는데 있어 모든 직원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쳐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집중할 것입니다.

국내 외 경기침체와 장비산업 전반에 걸친 어려움이라는 이중고가 예견 되는 올해에는 에이피피만의 대기압 플라즈마 고유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국내 반도체 및 OLED시장과 글로벌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에이피피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려 합니다.



새로운 국내 반도체 및 OLED 시장과 글로벌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에이피피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APP DNA를 갖는 100개의 APP 가 재탄생" 되는 비전이 실현되어 기업의 플랫폼 구축

이를 위해 그 동안 축적된 특화 기술과 신규 장비, 모듈 개발에 적합하도록 기술연구소 조직을 강화하고 국내외 영업망의 재정비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는 감동을 직원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가 만든 플라즈마 빛에서 출발한 솔루션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결함이 제거되고, 품질의 혁신이 일어나 제품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국내외 플라즈마 관련 산/학/연 및 기관들에 우리의 제품이 사용될 때 "1달러의 자산이 100달러의 가치로"라는 에이피피 미션이 현실로 다가오고, "APP DNA를 갖는 100개의 APP가 재탄생"되는 비전이 실현되어 기업의 플랫폼 구축이 변화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에이피피의 경영원칙인 '신앙경영'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 흘려보냄의 과정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와 힘을 합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희망과 열정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모멘텀의 계기가 되는 기해년이 되시기를 바라며, 고객 여러분들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동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니다





지난 10월4일 Comet Lab One(Comet 데모 및 테스트 센터, San Jose) 행사에서 그 동안의 APP - Comet 간 협의에 따라 APP의 대기압 Ar Plasma 장비 설치와 시연을 하였습니다. 기념식 당일 100여개 고객사 임직원이 방문하였고, NASA 및 Microsoft 임원의 speech 등과 더불어 당사의 대기압 Plasma를 Center 현장에서 시연함으로써 APP의 대기압 Ar Plasma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손쉬운 운용시스템으로 강력한 표면처리 성능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손쉬운 운용시스템으로 강력한 표면처리 성능을 체험

900

COM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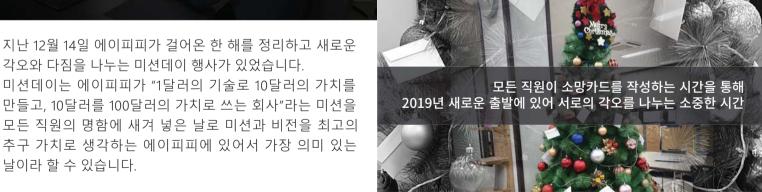
실리콘 밸리에는 스마트폰, IT, 반도체, 바이오 등의 첨단제품과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조산업에서 생산성 혁신, 품질 혁신, 공정 혁신, 가격 혁신 등 4대 혁신의 씨앗이 에이피피 대기압 Plasma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이기도 합니다. 에이피피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첨단 제조산업에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에이피피가 걸어온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나누는 2018 미션데이 행사

미션을 모든 직원의 명함에 새겨 넣은 날로 미션과 비전을 최고의 추구 가치로 생각하는 에이피피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

특히 이번 미션데이에서는 모든 직원이 소망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통해 2019년 새로운 출발에 있어 서로의 각오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7월 에이피피 미션 실천의 하나로 시작한 대학생 인턴활동

2019년 1월 제6기 인턴활동을 시작합니다.

2016년 7월 에이피피 미션 실천의 하나로 시작한 대학생 인턴 활동이 2019년 1월 제6기 인턴활동을 시작합니다. 전년도는 인턴 현장학습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과 활동지도의 틀을 마련하고 정착시켰으며, 에이피피 인턴 출신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취업, 그리고 취업 후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인턴 5기 조국서 학생은 현장체험학습 공모전에 에이피피에서 경험한 인턴활동으로 응모해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이피피는 10달러를 100달러의 가치로 쓰는 회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인턴 5기 조국서 학생현장체험학습 공모전에 에이피피에서 경험한 인턴활동으로 응모해 우수상 수상



에이피피 10월부터 '일 속의 신앙'이라는 소모임 시직



에이피피는 10월부터 '일 속의 신앙'이라는 소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일 속의 신앙'은 일터의 현장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산적해 있는 일터와 삶의 한가운데에서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영과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삶과 경영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신앙인으로서 온몸으로 하는 답변과정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이 목적이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꿈을 공유하고 최선을 다하며,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공정하게 성과를 나누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모임은 "비즈니스 속의 신앙"을 오랜 동안 연구해오고 있는 JBS의 16강 온-오프 프로그램의 도움과 오랫동안 많은 회사에서 일과 신앙의 실천적 적용으로 사역해오신 조정식 사목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이피피 '일 속의 신앙' 소모임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작지만 소중한 것들로부터 하나씩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퇴사문화와 선 순환 일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 흘려 보냄 하나의 과정



2018년 마지막을 몇 일 앞두고 제조기술팀의 뜻 깊은 회식자리가 있었습니다.

연구소와 영업팀이 함께했던 이 자리에는 에이피피를 퇴사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직원과 에이피피 퇴사를 몇 일 남긴 직원이 참여하여 가진 즐거운 시간 이였습니다. APP은 퇴사문화와 선 순환 일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또한 흘려 보냄의 하나의 과정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를 보내고 2019년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2018년 한해는 APP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이였습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대기압 플라즈마의 기술장벽을 넘어서 산업현장에 쓰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여건이 어려운중에도 함께 힘써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주신 APP 직원들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신앙경영으로 시작한 2018년을 보내면서 신뢰의 기초가 하나님 곧 당신이라는 것을 비즈니스세계 한 가운데서 확인합니다. 나를 당신보다 더 의지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주신 이 엄청난 세계에서 빛과 소금의 미션을 잘 수행 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당신을 경외함으로 경영하게 하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1-2)



사람은 일을 통해 인생을 그려나가며, 사랑을 통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갑니다. 일과 사랑은 인생을 그려나가는 힘인 동시에 그 힘을 만들어 내는 동력인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일 속에 파묻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경우 ,일은 일이고 사랑은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올해 시작한 '일속의 신앙'이라는 신앙모임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이기 때문에 '일속의 신앙'이나 '일속의 사랑'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랑을 할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이에게는 죽음보다도 용서가 어렵다고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4.5)



하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사랑이시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결이 신앙이며, 신앙에서 일과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We create value of 10 dollars from a technology of 1 dollar value. We use 10 dollars to make it worth of 100 dollars.

我们用1美元的技术,创造10美元的价值 我们使用10美元,产生100美元的效益

1달러의 기술로 10달러의 가치를 만들고 10달러를 100달러 가치로 쓰는 회사